

# 죽음 속에 있는 삶의 메시지

〈유리〉 〈꽃잎〉 〈축제〉 ... 생성과 소멸의 구도

박상룡의 《죽음의 한 연구》(문학과지성)를 신예 양윤호감독이 영화화한 〈유리〉, 이청준의 소설 《축제》(열림원)와 동반창작으로 영화화된 임권택의 〈축제〉, 최윤의 중편소설 〈저기 소리없이 꽃잎이 지고〉(문학과지성)를 영화로 만든 장선우의 〈꽃잎〉 등 중견작가들의 원작을 영화화한 세편의 작품이 최근 복잡다기한 관심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작들이 끌어낸 '미학에 대한 지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영화들이 모두 인간사의 영원한 숙제인 '생성과 소멸'의 구도를 밑그림으로 깔고 있기 때문이다.

## 불교적 메시지

영화 〈유리〉는 흡사 암호로 가득찬 밀교의 경전같은 박상룡의 소설 《죽음의 한 연구》를 감히(?) 영화화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소설 속에 화두로 등장하는 지명하면서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한 '유리'는 중국 하남성 탕음현에 있는 실제 지명이다. 그렇다면 박상룡은 소설에서 왜 '유리'를 붙들고 늘어졌을까.

은나라 때 제후였던 주문왕은 당대의 폭군 주(紂)의 횡포를 비난했다는 죄목으로 당시 최대의 감옥이 있던 '유리'에 갇히게 된다. 그는 여기서 동양철학의 근간이 되는 《역(易)》을 완성한다. 유리는 곧 음양오행이 완성된 땅인 것이다. 소설은 여러 종교의 교리와 동양의 고서들이 이루어 놓은 의미망 속을 헤매면서 전개된다.

주인공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받고 유리로 들어간다. 그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라는 임제록의 권유처럼 자신의 스승을 죽이고 육신을 통해 영혼에 이르기 위한 기행을 벌이다 끝내 자신을 질투한 촛불승에게 죽음을 당한다.

영화는 소설처럼 일반인들에게 '정서적인 균열감'을 던져주면서 '새로 나는 것도 소멸하는 것도 없다'는 불교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5년에 걸친 시나리오 작업 때문인지 소설을 영화로 전환시킬 때 생기는 간극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것은 중층의 복잡한 의미들을 빈틈없이 엮어낸 완결성, 구조와 상징이 조화를 이룬 미학적 성취, 한국문학의 오랜 숙제가 될만한 문법의 구현 등을 이유로 수많은 문학이론가들의 극찬과 외경을 동시에 받은 소설 《죽음의 한 연구》가 이론 공간에 비해 영화가 만들어낸 공간이 협소해 보이기 때문이다. '사망(死亡)으로써 사망(思望)하기 시작한다'는 자막을 가슴에 담고 영화관을 나선 관객들의 마음속에 영화 〈유리〉가 '메시지'가 아닌 '충격영상' 정도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생긴다. 책의 위력에 눌렸을 지도 모를 이 영화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인기스타 한명 등장하지 않지만 열정적이고 인상적이다.

## 갈등해소와 새로운 시작

〈축제〉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다 돌아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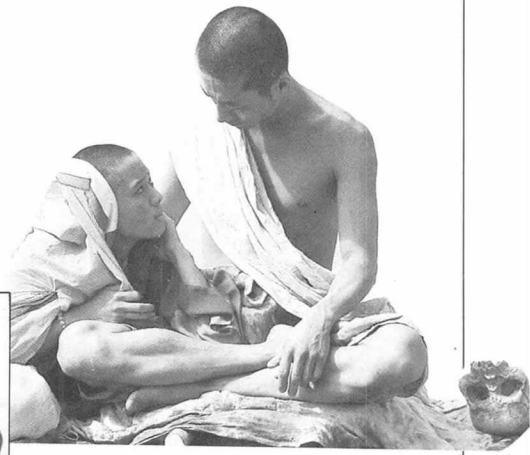


영화 〈축제〉와 〈유리〉의 한 장면.

**박상룡·이청준·최윤 등 중견작가들의 원작을 영화화한 세편의 작품이 복잡다기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영화들은 모두 인간사의 영원한 숙제인 '생성과 소멸'의 구도를 밑그림으로 깔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배경으로 어머니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인간군상들의 갈등과 화해를 그려내고 있다. 이 영화에는 두 권의 책이 등장한다. 영화 전체 줄거리의 축을 이루는 소설 《축제》와 소설보다 먼저 출간되어 영화와 소설이 동반창작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동화 《할미꽃은 봄을 세는 술래란다》(열림원)가 그것이다. 영화는 이 동화의 내용을 세트촬영으로 부분삼입해 주제를 이끌어간다.

영화와 소설, 동화 모두 불교적인 세계관



인 연기(緣起)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들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는 동화에서 묘사하는 대로 '이 땅의 손자들에게 자신의 나이를 나누어주고 가는 것'이다. 당연히 그 손자는 자신의 손자에게 다시 나이를 나누어 줄 것이므로 불교의 불생불멸(不生不滅)과도 상통한다.

영화는 소설에서 설명하기 힘든 죽음의 의식과 절차를 자막까지 동원해 줄거리에 맞추어 시간대별로 설명한다. 그러면서 '운명'이라는 인간적 연대감을 각기 다른 길을 걸었던 가족들과 이웃 공동체의 반응을 통해 보여준다. 한 사람의 죽음이 결국 갈등의 해소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동화는 다소 작위적이다. 관객들을 대상으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강요'처럼 느껴진다. 13년전 돈을 훔쳐 달아났던 배다른 손녀 용숙이 영화 후반부에 《할미꽃은 봄을 세는 술래란다》의 책장을 덮으며 눈물을 떨구는 부분은 갈등의 깊이에 비해 너무 빈약한 화해다.

## 5월의 죽음

중견작가 최윤의 문단 데뷔작인 중편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영화화한 〈꽃잎〉은 우리시대 씻기 힘든 상처인 광주

## 영어교재 출판계에

## 새바람을 일으킬

## 성실한 인재를 찾습니다.

### ■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 연구부: 선임연구원 ○명  
-영어관련학과 박사과정 이상
- 연구원 ○명  
-영어관련학과 석사과정 이상
- 편집부: 사원 ○명  
-영어관련학과 4년제졸
- 편집·교열·교정경력 1년 이상

### ■ 전형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시험(영어)
- 3차: 면접

### ■ 제출서류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부착) 1통
- 자기소개서(상세히) 1통
- 성적증명서(대학·대학원) 1통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력서 상단에 연락전화번호를 명기할 것.

### ■ 접수마감일

- 1996년 8월 31일(당일 소인 유효)

### ■ 접수처

- 서울청량우체국사서함 122호
- EEI 영어교육연구소**
- 1330-650

# 서양 현대미술의 사회·역사적 이해

《서양 현대미술의 기원》을 읽고

최종고 · 서울대 법학과 교수

의 상흔을 다루고 있다. 80년 5월 어머니의 죽음을 비롯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목격한 뒤 오빠를 찾아헤매는 한 실성한 소녀의 행적과 그녀를 대하는 인간군상들의 내면을 통해 '개인의 폭력성'에서 비롯된 '사회의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에서 소녀가 찾아 헤매는 '오빠'는 행복한 시절의 잔상이자 '선'이 압도했던 시절에 대한 절박한 회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소설은 몇가지 시점, 즉 소녀의 독백과 소녀를 찾아다니는 오빠친구들, 소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청년 등 여러 화자에 의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이 각기 다른 시점이 '피'로 상징되는 폭력의 현장에서 모인다.

장선우 감독은 이런 다양한 시점을 흑백 화면과 실제상황이 담긴 필름, 애니메이션 등을 동원해 보여준다. 소설의 화자와 시간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낸 연출력과 해금가락이 압권인 배경음악 등이 소설의 차원과는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새롭고 역동적이고 예술적인 이 영화는 광주가 아직 소멸하지 않았음을 절실하게 웅변하고 있다. 죽음은 모두에게 다가올 일이고 죽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에게 남겨지는 숙제인지도 모른다. 주동자 몇명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광주'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해 5월의 죽음은 아직 소멸의 장으로 넘겨지지 않았다.

—허연 기자

미술과 미술사를 전공하지 않은 필자에게 벽찬 과제인 줄 알면서도 서평이 아니라 '산책'이라니 독후감이 몇 자 적어볼까 한다. 법사상사학자로서 필자는 법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적 현상이 필경에는 미술이라는 '거울'에 비춰지지 않나 추측하고 평소 미술사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 책(김영나 지음)의 저자도 "당시의 문화·사회와 역사적 배경 속에서 미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시각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 책은 실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사회적·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실제 작품이 제작되었는지에 관한 여러가지 사실들, 그것을 제작한 각 미술가들의 개성, 시대적 분위기, 제도 등의 복잡한 미술사적 변화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880~1914년의 30여년간의 후기 인상주의에서 추상미술로 변화하는 선구적 미술운동이 일어난 이 시기를 '현대미술'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변혁기로 보고 저자는 박사학위 논문에서부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이 책으로 연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20세기 미술사에 대하여는 해설서와 번역서가 나왔지만 '유럽의 현대화에 가속이 붙기 시작하는' 이 30여년간의 시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서는 이 책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미술학도와 미술애호가들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설서와 번역서에 머문 상태에서 이제

심도있는 각론 연구서가 나오게 된 것은 뜻깊은 발전이라 하겠다. 한국의 지도적 미술사가인 저자가 그동안 꾸준히 발표해온 연구문들을 모아 '치녀작'으로 집대성해낸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이 책은 모두 다섯장으로 <서론> <현대미술의 뿌리> <순수표현의 추구와 원시주의> <현대사회와 새로운 미술의 형태> <그 이후의 모더니즘과 20세기 미술>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19세기 후반의 유럽사회를 설명한 후 세잔느, 고흐, 고갱, 나비파와 아르 누보를 서술하고 3장에서는 20세기 초의 유럽사회를 서술하고 야수주의, 독일표현주의를 밀도있게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피카소와 브라크의 입체주의와 그 영향, 미래주의를 다루고 있다. 저자 스스로 "최초의 미술사학의 특징이 사회학적 접근이나 미술작품을 역사의 한 단면으로 보려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고, 또 그러한 연구성과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방법론을 따르려는 시도였다기보다는 미술사 서술에 그 시대의 역사와 변혁의 본질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평소의 생각에서였다"(서문)고 고백하고 있듯이, 방법론에 크게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현대미술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섭렵한 미술사가의 혜안이 엿보인다. 이 책을 읽고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던 현대미술 작품들의 뜻을 하나하나 알게 되고, 이른바 대가(大家)들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들



의 세계를 창조해나간 면모가 생생하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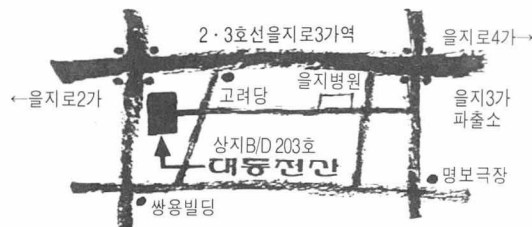
문장이 대체로 꼬장꼬장한 학술논문체이지만 그러면서도 흥미있는 에피소드를 곁들여 읽기에 재미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5장이 너무 간단하여 <서론>으로 시작된 책이 전체적으로 결론이 소략해진 감이 없지 않다. 이 부분을 보강하여 앞으로 현대미술을 보는 '김영나 미술사학'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싶다. 어쨌거나 필자는 평소의 궁금사항들을 많이 깨쳤고 막연히 난해하다는 선입감을 가진 현대미술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어 큰 수확이었다. ❖

시공사/B5/330면/20,000원

## 아래아한글 (IBM PC) 출력센터

- F1 필름, 인화지, 레이저 프린트 출력
- F2 PC로 작업한 데이터 편집출력
- F3 입력, 편집대행, 교육지원
- F4 다양한서체, 최대한자 및 고어지원
- F5 MS-WORD, 훈민정음 등

신속 · 정확  
(일본어 조판전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26 상지B/D 203호  
전화번호 : 275-0196 ~ 7,  
265-9271 275-7143

팩 스 : 275-7145 천리안 · 하이텔 : SOGO0318

♣ 전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을지병원출구

24시간출력  
기다리겠습니다!

대동전간

“좋은 출력  
좋은 책!”